



**집중취재**

안양소년원 문화예술제  
'정심 마음나눔 음악회' 개최



**아름다운 동행**

고봉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다함께 만들어가는  
Go To The Top! 학교 신문 동아리



**핫 포커스**

차세대 범죄예방정보시스템 구축,  
업무 효율성과 사용자 편의성을 높인다



**현장통신**

한명의아이를 키우기 위한 노력  
부천보호관찰소-한국브릿지심리상담센터 업무협약



**현장통신**

2025년 한국보호관찰학회 춘계 학술대회 개최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보호관찰 대응 방안



**현장통신**

법무부 제18기 정책위원회,  
보호관찰기관 정책현장 방문

## 집중취재

### 안양소년원 문화예술제 '정심 마음나눔 음악회' 개최



#### 음악으로 전한 마음의 울림, 정심 마음나눔 음악회

2025년 6월 26일 오후, 안양소년원(정심여자중고등학교)에서 열린 '정심 마음나눔 음악회'에서는 학생들의 연주와 합창 등이 따뜻하게 울려 퍼졌다.

이날 음악회는 정심학교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을 통해 준비한 공연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는 자리로, 학생들의 회복과 성장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 13개 공연, 60분간 이어진 감동의 무대

이번 음악회에는 강득구 국회의원(안양시 만안구),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안양시 관계자, 자원봉사자 등 30여 명이 참석해, 학생들이 그동안 흘린 땀과 노력의 결실을 함께 응원했다.

행사에 참여한 강득구 의원은 "이번 행사는 학생들에게 교육을 넘어선 중요한 경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가 협력을 지속하여 학생들의 성장을 위한 든든한 발판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 고적대반이라고? 낯섬 속에서 피어난 열정

2025년 3월 고적대반에 편성된 학생들 대부분은 악기를 처음 접했다. 음표 하나를 익히는 것도 쉽지 않았고, 연습 도중 마음먹은 대로 잘 되지 않는 속상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눈물을 보인 학생도 있었다.

하지만, 음악회 무대에 서야 한다는 목표가 생기자 마음속에서 열정의 싹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서툴지만 꾸준한 연습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하며 학생들은 함께 음악을 만들어갔다.



### 모두의 마음을 울린 그날의 무대

공연 당일, 무대에 오른 학생들은 다소 긴장한 모습이었지만, 눈빛은 빛나고 있었다. 연주가 시작되자 언제 그랬냐는 듯 능숙하게 악기를 다루는 모습에 객석에서는 놀라움과 박수가 이어졌다.

특히, 정심 고적대는 창단 3개월 만에 「Viva la Vida」, 「Hound Dog」 등 6곡을 연주하며 관객들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고, 합창, 리코더 연주, 직원의 마술공연도 함께 어우러지며 강당은 감동의 무대가 되었다.

공연에 참여한 A양은 “밖에 있었다면 무대에 설 기회도 없었을 거예요. 기회가 와도 피했을 나인데, 이곳에서 선생님들 덕분에 해낼 수 있었습니다. 음악회를 통해 내가 이 정도나 되는 사람이란 걸 처음 알게 됐고, 실패든 성공이든 그 과정을 마주하고 나니 조금은 단단한 내가 된 것 같아요. 너무 부듯한 음악회였어요”라며 진심 어린 소감을 전했다.

### 선생님과 함께 만든 진심의 무대

공연을 총괄한 남하린 교사는 “학생들과 함께하는 이번 음악회는 그 자체로 소중한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먹하던 아이들이 음악을 통해 마음을 열고, 자신을 표현해가는 모습에서 진심 어린 변화와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서로를 이해하며 함께 해낸 경험은 아이들에게 큰 성취로 남았을 겁니다. 이 무대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정심학교의의 작지만 큰 울림,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정심학교 강당에 울려 퍼진 학생들의 진심 어린 하모니는 관객들에게는 감동이 되었고 학생들에게는 사회와 다시 이어질 수 있는 통로가 되어주었다.

**‘이날의 울림은 학생과 관객들 모두에게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



## 아름다운 동행

### 고봉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다함께 만들어가는 Go to the Top! 학교 신문 동아리



고봉중고등학교 꿈키움 교육 신문 1호

# Go! to the Top!

高峯  
고봉중고등학교

발행처 : 고봉중고등학교  
기 록 : 지도교사 김정은  
권 재 : 왕희 외 4인  
편 집 : 정현 외 4인  
주 소 : 경기도 의왕시 고산로87(고천동)  
전화번호 : 031-450-6147  
팩스번호 : 031-450-6148

발간일 : 2025년 6월 1일

#### Contents

- 1 장간사 범죄예방정책국장 이영민
- 2 장간호 인터뷰(신문 동아리 지도교사 김정은 선생님)
- 3 퇴원생 인터뷰(대전○○고등학교 1학년 재현)
- 4 목요일은 원장님의 학생 상담 dAY
- 5 법정을 매우는 따뜻한 호흡, 전종호 판사님 인터뷰
- 6 (대학 소개) 용인대학교 무도학과
- 7 (독서 교육) 4.20. 장애인의 날 기념, 님부이치치의 허그
- 8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제27회 전국 백일장 출품작
- 9 제17회 전국 세대공감'사랑과 효'공모전 출품작
- 10 (경제교육) '영랑소녀, 자본주의에서 살아남기'를 읽고
- 11 엄마랑 데이트, 고봉 아벤저스 생활지도계
- 12 (역사교육) 일제강점기의 시인, 송려, 독립운동가 만해 한용운 선생님
- 13 kbs 시사기획 창 수업 촬영, 한식조리 국어 컴퓨터 바리스타
- 14 (독서교육) 소년이 온다(한강)
- 15 (부록) 약해지지 마(서버타도요)

#### 학교 신문을 통해 자존감이 높아지는 고봉 학생들

나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소년한국일보가 주최하고 교육부가 후원하는 “새로운 교육을 바라는 글” 공모전에 참가하였다. 그 후 소년한국일보 신문에 수상자가 발표되었는데 우수상 수상자에 내 이름이 있는 것을 확인한 순간이 잊혀지지 않는다. 한국일보사에 초대되어 대강당에서 사장님께 상장을 받은 가슴 설렌 순간을 떠올리면 아직도 감격스럽다. 자존감이 낮은 우리 고봉학생들도 자존감이 올라가는 감격스러운 경험을 했으면 싶어서 각종 글짓기 공모전 주최 기관에 직접 전화를 드려 참여 협조 공문을 보내달라고 하고 수업시간에 모든 학생들이 글을 쓰게 한 뒤 대회에 출전시키고 있다. 그리고 그 글을 학교 신문에 실는다. 나는 어릴 때부터 교육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고 자녀를 낳고 보니 교육에 더 많은 관심이 생겨 시간이 날 때마다 교육 관련 책을 틈틈이 읽고 있다.



### 자발적 교정교육을 목표로 하는 학교 신문

우리 학교 신문 동아리의 목표는 학생들이 읽고 쓰면서 스스로 깨달음을 얻는 자발적 교정교육을 목표로 한다. 본보기가 되는 학생을 제시하며 효과적인 교정교육을 하기 위하여 퇴원 후 모범적으로 생활하는 학생을 인터뷰한 기사를 실었는데 다수의 학생들이 그 기사를 읽으며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는 소감을 밝혀 부듯했다. 학생들이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기 하기 때문에 얼마 전에는 대림대학교 공대(기계과, 전기과, 반도체학과) 교수님을 모시고 대강당에서 입시 설명회를 열었다. 입시 설명회가 끝난 후 학생들이 “저도 대림대학교에 갈 수 있나요?”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대학 진학에 관심이 생겼다는 사실에 기뻐고 학생들의 소감문에 대학에 진학해서 엔지니어가 되어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글을 읽으니 흐뭇한 미소가 지어졌다. 나는 학생들이 무엇보다 애국심을 가지길 바라고 또 학생들에게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가 되고 싶다’는 가치관을 심어주고 싶어서 수업시간에 문학작품을 제시하고 그 작품의 시대적 배경이 되는 한국사 교육을 한다. 내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독립운동가인데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지닌 MZ세대, 알파세대에게 독립운동을 존경하는 마음, 애국심을 심어주는 것이 내겐 가장 어려운 교육으로 느껴진다.

### 모든 학생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학교 신문

신문을 읽은 여러 사람들이 “신문 기사를 고봉 학생들이 쓴 게 맞나요?”라고 내게 질문했다. 만약 나 혼자 신문을 다 만들어야 했다면 애초에 시작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요즘은 수업시간에 경기남부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에서 도박중독 치료자들의 수기를 모은 책을 내가 미리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일일이 사진을 찍은 후 미러링해서 교실 앞 큰 모니터에 띄우고 한 학생씩 모니터 앞에 나와서 책을 읽으면 다른 학생들은 눈으로 따라 읽고 들은 뒤 모두가 감상문, 소감문을 쓰는 시간을 갖고 있다. 글을 잘 쓰는 학생도 있지만 조금 부족한 글은 내가 수정을 하여 신문에 실는다. 학생 교육을 위한 신문이기 때문에 교육적 가치가 효과적으로 내면화될 수 있도록 수정을 많이 하는 편이다. 열심히 쓰는 학생들에게는 상점을 부여하기 때문에 모두가 열심히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고 학생들이 직접 쓴 글을 기사로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모든 학생들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신문동아리가 더욱 뜻깊은 것 같다.

### 학교 신문을 통해 대한민국의 훌륭한 아버지로 성장해가는 학생들

학생들이 사회에서는 말쟁쟁이였던 것에 비해 고봉중고등학교에서는 차분히 생활을 잘하는 편이다. 학생들이 학교 신문을 직접 쓰고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는 마음도 가지며 이곳에서는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퇴원하면 먹고 살기에 너무 바쁜 부모님께서 아침에 깨워서 강제로 학교에 보내주는 일이 없다 보니 학교에 제대로 나가지 못해 비행을 반복하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듯하다. 아버지는 주말이 되면 가족들을 데리고 교보문고 광화문점에 자주 가시곤 했다. 그곳에서는 땅바닥에 앉아 책을 읽는 사람들이 많아서 우리도 읽고 싶은 책을 꺼내 바닥에 앉아 책을 읽었다. 나와 내 동생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대중교통으로 한 시간 반이 걸리는 교보문고 광화문점을 자주 찾았다. 그곳에 가면 마치 고향에 온 듯 마음이 편안해지고 가족들과 함께 했던 어린 시절의 향수에 행복감이 밀려왔다. 아버지라는 존재는 가족들을 배에 태우고 넓은 바다를 향해하는 선장과 같아서 한 가족을 어떤 길로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자 가정에서 아주 큰 기운을 지닌 사람이다. 그런 아버지가 술을 먹고 폭력을 휘두른다거나 어머니와 사이가 안 좋아져서 헤어지게 된다면 그 배는 침몰하고 가족들은 큰 고통을 겪게 된다. 국가에서는 저출산을 문제 삼지 말고 한 가정의 가장이 될 ‘아버지 교육’을 했으면 한다. 아버지는 새벽 네 시에 출근을 해서 밤 열한 시에 퇴근을 하셨고, 국정감사, 국회, 청와대 보고 등이 있을 때는 새벽 세 시가 되어서야 택시를 타고 집에 들어오셨다. 그런 아버지를 기다리며 늦게까지



공부하고 일찍 일어나서 학교에 가는 습관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 학교생활 12년 동안 한 번도 개근상을 놓친 적이 없다. 하지만 밥상머리에서 아버지와 대화를 많이 나누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아쉽다. 아버지는 가족들과 식사를 할 때 늘 뉴스를 켜고 뉴스만 보며 아무 말씀 없이 식사를 하셨다.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간다면 아버지께 많은 것을 여쭙고 싶다. “장관님 차관님과 오늘 어떤 말씀을 나누셨나요?” 부모님과 많은 대화를 나눈 학생들은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긍정적이며 언어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등이 뛰어나다. 나는 그런 부분에 있어 부족한 점이 많고 내 어린 시절의 부족함을 학생들에게 채워주기 위해 오늘도 학생들과 많은 대화를 나눈다. 우리 고봉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신문을 쓰고 읽으며 다시는 재범을 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인재로 거듭나길 오늘도 기도한다.

목요일은 교장 선생님의  
학생상담 DAY

윤태영 교장 선생님과  
주원이의 talk



4월 24일, 태양이 하늘의 정중앙까지 떠오른 무렵의 따스한 시간에 나는 교장 선생님과 면담을 위해 상담실로 이동하였다. 나는 상담실 방 안에서 의자에 앉아 교장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었고, 전날 밤 교장 선생님을 만나 뵙게 되면 드리려고 마음먹었던 말을 잊지 않기 위해 교장 선생님이 오실 때까지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한참이나 되뇌었다. 그렇게 한참이나 되뇌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을 때 상담실 입구 쪽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교장 선생님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터벅터벅 교장 선생님께서는 나를 향해 걸어오셨고, 내 가슴 속에서는 두근두근 떨리는 소리와 함께 심장이 크게 요동을 쳤다. 교장 선생님께서 내가 앉아 있는 방 안으로 들어오시자 나는 벌떡 일어나 허리를 숙여 교장선생님께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다. 그러자 교장 선생님께서는 환한 미소를 띄우시며 나에게 반갑다고 말씀하셨고, 그제서야 나는 교장 선생님의 환한 미소에 긴장이 사르르 풀렸다.

교장 선생님께서 나에게 건네신 첫 마디는 지금까지 소년원 생활을 어떻게 해 왔냐는 것이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와 함께 내가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하나, 둘 말씀드리기 시작했다. 그러자 교장 선생님께서는 나에게 대한 서류들도 한 번씩 훑어보시더니 아낌없이 칭찬을 해주셨다. 칭찬을 듣다 보니 부끄럽기도 하였지만 그래도 싫지는 않았다. 내가 그만큼 큰 사고 없이 잘 지내왔기 때문에 오히려 인정받은 것이라고 생각했고, 보람차고 뿌듯했던 것 같다.

그 다음으로는 교장 선생님께서 진로에 관한 질문들을 해주셨다. 나는 전날 밤 연습했던 대로 구체적으로 어떤 꿈을 이룰 것인지 또한 딱딱 말씀드렸다. 내 꿈은 직업군인이기에 정말로 멋있게 내 꿈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었다. 그리고 나는 군인이 되기 위해 육군3사 관학교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드렸더니 교장 선생님께서는 정말 좋은 꿈과 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내게 또 한 번 칭찬을 해주셨다. 나는 이제야 꿈을 찾고 나의 꿈을 누군가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이에 덧붙여 칭찬까지 받게 되니 나가서 나의 꿈을 꼭 이뤄내야겠다는 다짐과 함께 열정이 생겨났다.

나는 소년원 학교에 들어온 것이 내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 소년원 학교에 들어온 후 개인적인 시간이 많아졌고, 이에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내가 이런 꿈을 꿀 수 있었던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나는 꼭 군인의 꿈을 이루어 타인을 위해 봉사하며 항상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고 싶다. 그리고 나는 내가 내딛는 발걸음마다 부끄럽지 않은 발자국을 남기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라도 내가 소망하는 삶을 이루고 정말 멋있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은 원장님과 면담 도중 더욱 확고해져만 갔다. 교장 선생님과 면담을 하면서 교장 선생님께서 해주셨던 진심이 담긴 말씀들이 아직까지도 내 가슴 깊은 곳에서 떠나지 않고 있다. 왜냐하면 교장 선생님께서 해주셨던 좋은 말씀들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머릿속으로 계속해서 되뇌고 있기 때문이다. 교장 선생님께서 소중한 시간을 내어 해주신 것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나는 교장 선생님의 말씀들을 더 가슴 깊이 새길 수 있었던 것 같다.

나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내 꿈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정말 너무 좋았고, 그게 교장 선생님이라서 더욱 좋았다. 그러므로 나뿐만이 아닌 다른 학생들도 교장 선생님과 면담을 통해 자존감이 올라가는 감동스러운 기분을 느껴 보았으면 좋겠다.

오늘은 나 자신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환기하고, 자아를 새롭게 정립하게 된 정말 뿌듯하고 행복한 하루였다.

## 핫 포커스

# 차세대 범죄예방정보시스템 구축, 업무 효율성과 사용자 편의성을 높인다

법무부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 범죄예방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차세대 범죄예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노후화된 시스템 전면 개편

이번 사업 범위에 해당하는 모바일 보호관찰 시스템, 보호통합지원시스템 등 8개의 업무지원 시스템은 각각 2000년대 중후반에 분산 구축되어 별도 고도화 없이 15년 이상 유지되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 시스템에 해당하는 인프라가 노후화되어 업무 처리 속도가 현저히 저하되고, 장애가 수시로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데이터 역시 최신 데이터 표준을 따르지 않아 유관기관과의 정보 연계가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되어 왔습니다.

아울러 시스템마다 화면 구성과 처리 방식이 달라, 여러 기능을 번갈아 이용해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하며 담당자가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정리·보완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사용자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개선이 시급한 부분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분산 구축된 노후화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통합·개선하고, 최신 장비와 기술, 데이터 표준을 적용해 새로운 업무 환경과 정보 연계 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습니다.

### 안정적 인프라 구축

기존 인프라는 대부분 내구 연한이 지난 장비들로 구성되어 장애 발생 위험이 높았습니다. 또한, 단일 구조의 백본에 다수의 서버가 연결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서비스 경로가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업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으로 전환하여 시스템의 확장성과 유연성을 높이고 보다 효율적이고 비용 부담이 적은 운영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 현장통신

### 한 명의 아이를 키우기 위한 노력



#### A양의 이야기

보호관찰을 받는 소년 A양의 이야기입니다. A양의 가족은 엄마뿐입니다. 엄마는 미혼모로 A양을 출산하였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 국가의 지원을 받아 생활합니다. 엄마는 A양에게 관심이 많고 대화를 원하지만, A양은 엄마가 창피하고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환경이 싫어 가출을 반복하다 보호관찰을 받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보호관찰을 잘 받으려고 노력하지만 엄마와 서로를 비난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주고 받다,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모른 채 결국 엄마는 아동학대로, A양은 존속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습니다.

하늘이 맺어준 가족이지만 엄마는 A양을 엄하게 처벌해 달라고 탄원서를 제출하고, A양은 그런 엄마를 없는 사람 취급하며 심한 욕설과 폭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결국 A양은 초기 마음가짐과 다르게 준수사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게 되었습니다.

#### 어떻게 해야 할까?

A양의 경우, 누군가의 도움이 없다면 엄마와 갈등이 심해 가출, 폭력 등 문제 상황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소년범죄는 소년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부모 등 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이 함께 맞물려 있기에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범죄가 반복·심화되어 더 큰 사회적 위험을 초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보호관찰관의 개입만으로 소년의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보호관찰 청소년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소년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복합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 **모든 문제의 해답은 자신-우리에게 있다**

부천보호관찰소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다양한 지역사회 전문가와 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통제와 감독 중심에서 성장과 회복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소년보호관찰 처우의 전환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 4월 지역사회 상담전문기관 ‘한국브릿지심리상담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가족 구성원 간 갈등이나 소통 부재가 비행의 원인이 된 소년의 가정을 대상으로 상담과 교육을 통해 정신적 외상 극복과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는 ‘마음링크(Maum Link)’ 프로그램을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가톨릭대학교 임상심리학과 대학원생(석사과정)을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하여 보호관찰 청소년의 자아 정체성, 대인관계, 학업 및 진로 등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는 ‘마음심포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지역사회 전문가의 심리상담을 통해 소년의 문제를 전부 해결해 주지는 못하더라도 해결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고, 어제보다 더 나아진 오늘을 경험하게 해줄 수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 **‘한 명의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한편, 범죄예방정책국에서는 2025년부터 소년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심리검사, 상담, 치료 예산으로 4억 4천만 원을 처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모든 소년에 대해 정신질환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정신질환 문제가 있거나 재범 위험성이 높은 소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심리상담과 정신과적 치료가 가능해졌습니다.

‘한 명의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이는 현재 우리에서도 통용되는 격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범죄자’이기 전에 ‘소년’이기 때문에 보호관찰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사회의 안전을 위해 지역사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협력하고자 합니다. 이제 첫발을 내디딘 만큼, 우리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소년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 현장통신

### 2025년 한국보호관찰학회 춘계 학술대회 개최

한국보호관찰학회는 2025. 4. 25.(금) 13:00 국립부경대학교에서 춘계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교수, 연구원 등 학계의 형사정책 전문가와 법무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보호관찰 대응 방안’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 주제 발표(부경대 손외철 교수, 경남대 김도우 교수)

부경대학교 미래융합학부 경찰범죄심리학전공 손외철 교수는 ‘한국 소년범죄자 관리전략 개선방안 모색’이라는 발제를 통해 영국의 YOT(Youth Offending Teams) 운영모델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보호관찰제도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발표하였고, 경남대학교 경찰학과 김도우 교수는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보호관찰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최근 사회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는 급격한 초고령화에 대한 형사사법적 고찰을 발표했습니다.

#### 개회사(한국보호관찰학회 홍영오 회장)

한국보호관찰학회 홍영오 회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우리 사회는 저출산,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며 다양한 사회적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보호관찰 대응 방안’을 주제로 개최되는 학술대회는 급속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정책적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 축사(범죄예방정책국 이영면 국장)

이영면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개최된 학술대회를 통해 소년범죄자 관리를 위한 한국형 YOT 구축방안과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체계 방법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학계의 다양한 시각과 아이디어들을 정책 수립과 집행에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현장통신

### 법무부 제18기 정책위원회, 보호관찰기관 정책현장 방문



법무부 제18기 정책위원회는 2025년 4월 15일 보호관찰 대표 기관인 서울보호관찰소와 전자감독의 중추기관인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하여 기관 업무 현황을 청취하고 시설을 참관하였습니다.

그리고 제5차 안건인「소년원 학생 재범 방지 방안」과「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기관 업무현황 청취

서울보호관찰소 이형섭 소장은 보호관찰 현황, 주요 업무에 대해 소개하였고, 중점 추진사항으로 정신질환 대상자 관리 강화, 마약사범 엄정 관리 등을 보고하였습니다. 이어서 법무부 전자감독과 김근한 과장은 전자감독제도 개요, 운영 성과 등을 보고하였습니다.

#### 서울보호관찰소 시설 참관

정책위원님들은 전자감독 대상자를 관리감독하는 전자감독과에 방문하여 실제 전자장치를 직접 보고 설명을 들으며 전자감독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밖에 약물검사실을 방문하여 마약사범에 대한 불시 약물 검사, 마약정밀검사 등을 통한 보호관찰대상자 재범 방지 노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시설 참관

이어서 정책위원님들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하여 관제센터 업무현황, 이동경로 시연,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또한, 홍보체험관에서는 2008년 최초 전자장치부터 현재 운영중인 전자장치와 피해자 보호 장치 등을 둘러보았습니다.

## 제5차 안건 논의

정책위원님들은 첫 번째 안건인「소년원 학생 재범 방지 방안」발표를 듣고 정신질환 소년원 학생 실효적 관리, 재범 원인 제거를 위한 소년원 교육과정 혁신, 가치관 확립과 공감력 향상을 위한 특별활동의 세부 추진 계획에 대해 토의하였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안건인「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발표를 듣고 스토킹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제도, 가해자 접근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 등에 대해 토의하였습니다.

민일영 위원장은 “소년원 학생 재범 방지 방안, 앞으로의 추진 계획 등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해 법무부가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영면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소년원 학생의 건강하고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소년원 교육과정을 잘 운영하겠다. 그리고 국민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 밀착 관리감독과 훼손 방지 강화 등으로 재범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